

I'ARCA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建築文化

a+u

新建築

NIKKEI ARCHITECTURE

## I'A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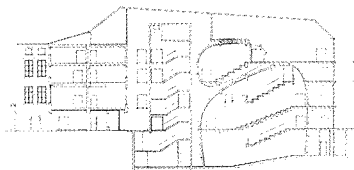
97년 9월호

본 호에는 Massimiliano Fuksas, Shoji Yoh, Architecture Studio, Coop Himmelb(l)au, Richard Rogers 등의 새로운 작품과 계획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공중 원격탐사를 통한 도시 연구, 하이텍 기술의 현실침투에 대한 예상이 실려있다.



### ■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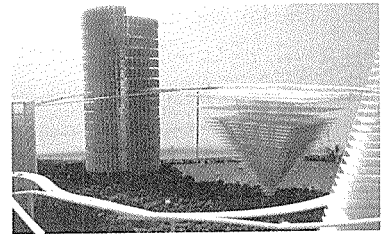
▶ Massimiliano Fuksas의 Limoges 법학대학



옛 건축물에 대한 증축에 있어서 Fuksas는 기존의 구조체를 탐구하는 동시에, 명확한 대조성을 띠는 급진적인 형태를 도입하였다. 이는 고대와 현대,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메워지지 않는 틈을 과감하게 삭제해버리는 것이다. 기존의

강한 석조 매스가 보존된 가운데, 투명한 철재 구조물을 덧붙여 실내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아연 도금된 패널로 이루어진 2개의 자유로운 구형의 매스를 삽입하고 있다. 이 매스에는 회의실과 강의실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주의를 “울부짖음”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언급했던 Ladislao Mittner의 정의를 우리는 이 작품에 적용할 수가 있다.

▶ Shoji Yoh의 2050 공중도시



1992년 요코하마 도시링 전시회의 일환으로 제시된 Yoh의 초고층 도시계획은, 3차원의 공중도로로 요코하마항 다리, 다이고쿠항, 하네다 공항을 잇는 것으로, 대지를 교통체증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그 건축물들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수직수평 격자체계를 파기하고 있다. 피라미드를 뒤집은 형태의 호텔, Le Corbusier의 Unit d'habitation을 개념화한 주거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는 보행자와 자연 환경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그 외에 ▶ Architecture Studio의 프랑스 파리 양로원, ▶ Jean-Philippe Pargade의 Strasbourg 대학교 기술관, ▶ RoTo Architects의 일본 나가사키 C 창고, ▶ Coop Himmelb(l)au의 Dresden 영화관, ▶ Nicholas Grimshaw & Partners의 에덴 식물원, ▶ Richard Rogers의 밀레니움 돔, ▶ Odile Decq et Benot Cornette의 럭비 체육관, ▶ Kiyonori Kikutake의 리버사이드 박물관, ▶ Alsop & Störmer의 Blackfriars 현대미술 협회 계획안, ▶ Gain Paolo Mar의 베니스 주차장 건물, ▶ Miguel Arruda Architectos Associados의 '98 Lisbon 엑스포 전시장 등의 신작이 소개되어 있다.

■상상에서 일상적인 현실로

Frank O. Gehry나 디즈니 테마공원의 건축물들은 머리 속 상상의 파편들을 현실에 구체화시킨 예들이다. 이들에서 테크놀로지는 섬세하고 치밀하게 조정된 이미지의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외부 현실보다 더욱 진실되고 구체적인 현실감을 제공한다. 산업, 연구, 오락계에 한정되던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이제 주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Gabor and Popper에 의해 수행된 캐나다 Montgomery Village 계획은 각 주호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상호 작용하는 영상, 음성신호, 팩스, TV를 즐길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도시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할 것이며, 극단적인 경우 현실의 물질세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상적 체험이 생활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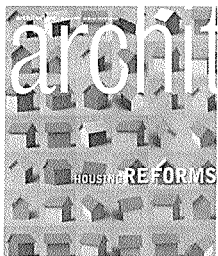
▶'98 Lisbon 엑스포 평가, ▶Dirk Schumann-Büro für industrielle Formentwicklung의 미래 지향적인 수중 주거공간 모델, ▶공중 원격탐사를 통한 도시연구, ▶건축 디자인, 미술계의 전시회 및 박람회 일정이 지역별로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97년 8월호

오늘날의 주택 건축 현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본호에서는 최근 미국의 공동

주택 정책의 변화와 그 모범적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테크놀로지 난에서는 최신 CAD 프로그램들의 소개와 성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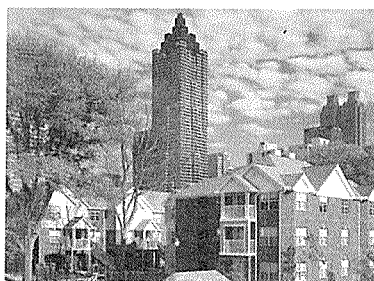


비교하고 있다.

■주택 건축

미국의 주택건축은 그 수요시장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그리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건축주들은 건축가의 독창적인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건축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갖는 집합주거의 변화된 경향, 그리고 그 극단적인 경우인 디즈니의 집합주거 단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건축가들이 주택설계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나, 근래에는 주택에 대한 건축가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는 정형화된 투기성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단독주택의 건축은 전체 건설비용의 30%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규정된 디자인의 반복이 아닌, 각 대지의 맥락에 적합한 건축가의 창조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 California에서는 아직 건축가들에 의해 집합주거 계획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UD(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의 보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축가들과 비영리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집합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별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HUD는 또한 이전의 고층 집합주거 계획에서 정원을 갖는 저밀도의 타운 하우스로 기본방침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계층간의 경제적 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디즈니가 계획한 집합 주거 단지인 Celebration은 가상화, 극화된 공동체를 통해서 예전의 소도시적인 마을을 부활시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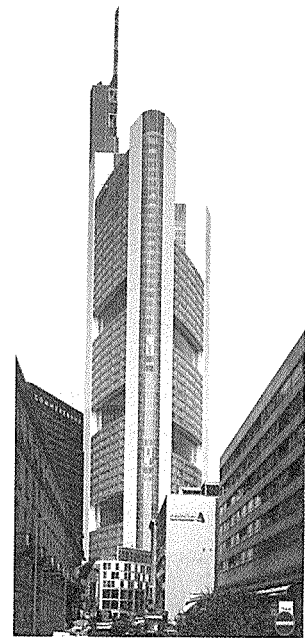


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비판과 더불어 주민과의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다.

■테크놀로지와 시공

▶자리를 옮겨 지어진 Frank Lloyd Wright의 Pope-Leighey House에 관련된 공법, ▶Electric Café Model Shop 2.5, Graphisoft ArchiCAD for TeamWork, Autodesys form Z 2.9 등 3개의 새로운 CAD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성능평가, ▶경제적,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고학력의 인력을 기용하는 설계사무소 동향, ▶바닥판 하부 설비에 대한 소개 등이 실려있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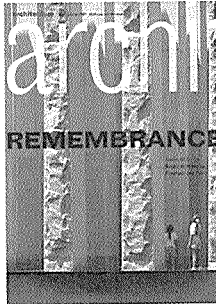
Frankfurt Commerzbank 본부

▶환경설계 계획이 돋보이는 Foster and Partners의 유럽 최고층 타워 Frankfurt Commerzbank 본부 ▶Richard Gluckman이 기존 교회 건물을 증개축하여 만든 미국 New Mexico O'Keefe 미술관, ▶Williams/Tsien의 미국 Baltimore Johns Hopkins 대학교 학생회관, 예술관, 본부 복합건물 당선안, ▶대지에 빈 의자들이 배열될 미국 Oklahoma 참사 기념관 계획안, ▶미국 Houston의 도시발전 근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 ARCHITECTURE

97년 9월호

본 호는 '지역'을 중시하는 문화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늘어나고 있는 기념관 건축의 문제점들과 근작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건축물, 건축과 광고, 건축사무소의 직원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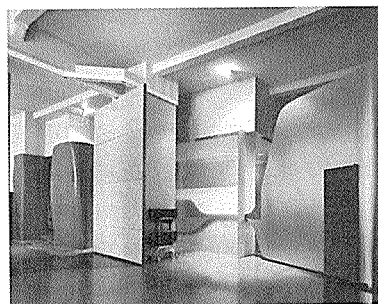
### ■ 기념관 건축

대중적인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던 기념관 건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정리, 그 복원 등 다양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보다는 오락과 여가 활용의 대상으로 변모해가고 있기도 하다. 수많은 기념관의 건축이 줄을 잇고 기념이라는 행위가 행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념의 대상이 되는 인물, 장소, 사건 등을 보다 냉정하게 규정해나가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전쟁 참가자들의 편지가 새겨진 수많은



암스테르담의 박물관



뉴욕시 아파트

대리석 기둥들로 구성된 Thompson and Rose Architects의 미국 Indiana Columbus 신 전쟁기념관, ▶네덜란드 Amsterdam의 부두가에 세워진, 선박 형태의 유선형을 차용한 Renzo Piano의 박물관 ▶지역의 농장 형태를 상징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Will Bruder의 미국 Wyoming Jackson 사무실 겸 주택들, ▶과거 전통을 새로운 형태로 복원하고 있는 Gwathmey Siegel & Associates의 미국 Washington대학교 미술관과 Kolatan/McDonald Studio의 뉴욕시 아파트 등이 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 ■ 테크놀로지와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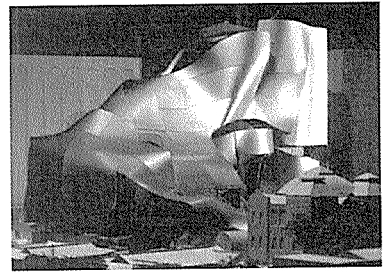
▶건축에 대한 철거와 신축보다는 복원 작업, 리노베이션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건축가와 보전 전문가의 협력 관계, ▶건축 사무소의 효과적인 직원교육 방식, ▶조적조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벽돌쌓기 디테일,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입수되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그 한계.

### ■ 건축과 광고

건축가, 건축 사무소의 신문 및 TV 방송을 통한 광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은 일용품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구입되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며, 건축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선정한 건축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광고가 오직 불필요한 지출을 늘일 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 이외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여 간접적인 홍보를 노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 ■ 기타

▶Richard Clarke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문화회관 디자인, ▶국내, 국외 건축가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투자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서울의 근황, ▶Frank O. Gehry의 삼성 현대미술관 계획안 ▶Planet Hollywood 등 오락적인 건축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David Rockwell과의 인터뷰 등이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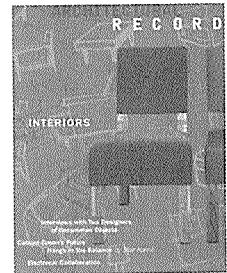


삼성 현대미술관 계획안

## ARCHITECTURAL RECORD

97년 9월호

기능에 따른 건물 분류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속기획에서는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루고 있으며,



Chicago의 Cabrini-Green 집합주거에 대한 보고, 건축 사무소의 인터넷 이용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연속기획 - 인테리어 디자인

근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향은 '유취'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건축가 출신인 Achille Castiglioni에서부터 미술가로 성장한 Roy McMakin에 이르기까지, 8명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인테리어 작품과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다. ▶나무라는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ltimo 상점

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조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David Woodhouse의 미국 Illinois 교회, ▶붉은 원색, 나무결, 천 등이 강한 대조를 보이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보여주는 Michael Gabellini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Ultimo 상점 ▶최근 MoMA에서 디자인 작품전을 갖는 Achille Castiglioni의 작품 세계와 인터뷰, ▶목재와 철재의 접합이나 설비 등이 노출되어 시공과 재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Randy Brown의 미국 Nebraska 주택 겸 스튜디오, ▶미술과 과학의 전면적인 충돌이 보여지고 있는 Samuel Anderson의 미국 Harvard 대학 미술관 Straus Center, ▶고밀도의 Manhattan 내에서 하늘을 향해 개방된 중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시공에 건축가가 깊이 개입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Dean/Wolf의 옥상 아파트 계획 ▶Valerio Dewalt Train Associates의 WMA Consulting Engineers 사무소 설계,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가 배어있는 Roy McMakin의 가구 디자인과 인터뷰 등이 소개되어 있다.



Dean/Wolf의 옥상 아파트 계획

#### ■ 테크놀로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설계의 진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 고객, 다른 설계사무소, 시공자 등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AutoDesk나 Bentley가 도면 파일을 인터넷에 띄우는 원칙과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수단은 더욱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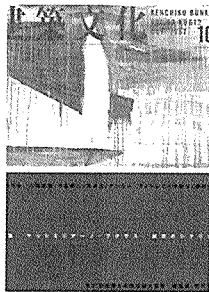
▶미국 Chicago의 가장 악명높은 집합

주거 단지인 Cabrini-Green에 대한 에세이, ▶미국 San Francisco 도서관의 아시아 미술관으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대립, ▶프랑스의 두 번째 규모의 미술관인 Lille Palais des Beaux-Arts의 재개관 소식, ▶Wolfgang Wagener의 중국 상해 주거 마스터플랜 등 아시아에서 계획안으로 채택될 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향에 대한 비판, ▶조명 아티스트 John David Mooney에 의해 장식된 미국 Chicago Tribune Tower, ▶얼마전 작고한 뉴욕 건축가 Paul Rudolph에 대한 간략한 소개, ▶미국 Illinois 공과대학(IIT) 대학본부 국제설계경기 1차심사 결과, ▶문에 관계된 다양한 신상품 소개가 실려있다.

## 建築文化

97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마시밀리아노 후사스(Massimiliano Fuksas)-도시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후사



스의 도시에 대한 입장을 내용으로 한 논고와 그의 최신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 외 작품소개로 가와쓰 히로시의 '자혜원', S. N House와 다케하라 요시지의 東히로시마의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 특집

파리와 로마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이탈리아의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후사스는 많은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5개의 그의 최근 작품에서 건축을 도시의 컨텍스트와 도시계획에 연결시키는 수법을 알아보고 그의 도시계

획에 대한 에세이 2편을 실었다.

▶논고 - 『후사스가 지향하는 도시』, 西森陸雄

후사스는 도시계획과 건축의 프로젝트를 50대 50의 비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가 최근 큼직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맡게 된 이유는 그의 수법이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동일하다는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실현시켜 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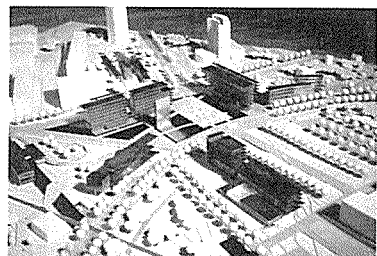
그의 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동물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이는 그가 데 클리에의 제자로서 오랜 기간 회화를 공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사무실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하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그의 작업들은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현실성은 그의 작품이 갖는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의 공간 컨셉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되거나 조각가의 작품이 되었거나 혹은 구겨진 종이조각이 되기도 한다. 그의 스타프들은 이러한 컨셉을 스케일을 갖춘 구체화된 계획으로 변화시킨다. 후사스의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은 예정조화적인 계획목표를 특징으로 진행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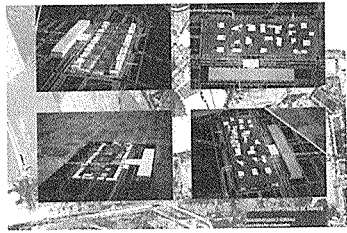
이미지 소스는 상당히 심상적인 시네마토 그래픽적인 풍경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의 구조는 여러 가지 시점에서 얻어지는 영상의 집적이다. 이는 도시 혹은 건축을 영화의 세트처럼 가정하고 그 자신이 카메라가 되어 공간을 부유하는 듯한 스탠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

소개된 5개의 작품들은 Plaza of Nations(제네바, 스위스, 1995-1999), Tremblay-en-France지구 재개발 계획(세느-생-드니, 프랑스, 1993-), Wienerberger Street 지구 재개발 계획



Plaza of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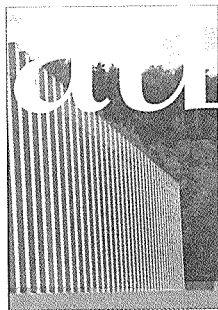
Tremblayen France지구 재개발계획

(비엔나, 오스트리아, 1995-2000), Tiburtina역과 Tuscolana역 주변 재개발 계획, Termini역 재개발 계획(로마, 이탈리아, 1995/1996-), Europark(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1994-1997) 이다. 이중 Plaza of Nation은 1994년 제네바 시와 ONUG, OMPI, UIT 및 제네바 대학이 공동으로 금후 건설될 건물들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의 마스터 플랜을 제안하는 설계 경기였다. 여기서 흑사스는 1등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안은 레만호의 물을 끌어들이 작은 호수를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의 광장을 만든 후 이를 중심으로 각 건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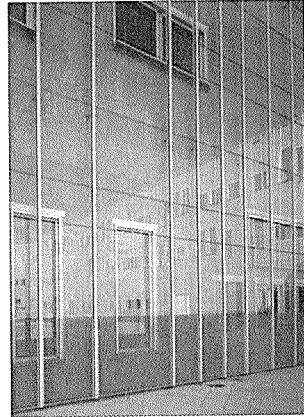
97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Erick van Egeraat의 3개 주요작품과 그의 에세이가 실려 가장 비중 있게 소개되었으며, 그의 외 Beat Consoni의 3개 작품을 비롯, SzyszkowitzKowalsky, Livio Vacchini, Herzog & de Meuron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Detlef Mertins의 『Transparencies Yet to Come: Sigfried Giedion and Adolf Behne』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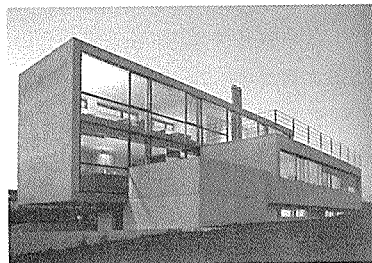
## ■ 작품

▶ Erick van Egeraat의 패션·그래픽 전문학교 (Utrecht, 네덜란드, 1994-1997)



공업과 상업을 위한 새로운 전문학교이나 그 평면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파사드에 있어서는 흉터나 조인트의 제거없이 이루어진 평범하고 진부한 디자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전설처럼 눈에는 그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육체에 새로운 불어넣는 것이 설계의 의도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목이기도 한 패션이나 공업을 설계상의 컨셉트로 하기로 하였다. 건물 전체는 거즈의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의 외피로 감싸져 있다. 유리의 피막 배후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놓여져 있다. 그것은 건물의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구조부재, 조적의 벽 등 건물의 핵심부가 투과되어 비춰지고 있다.

▶ Beat Consoni의 Sonderegger 주택(Fransacht, Switzerland,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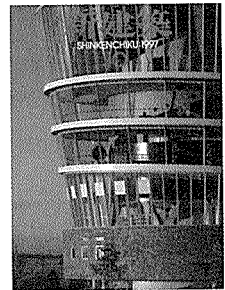
이 주택은 Fransacht 개발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권의 논경보호지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 민가 몇 채에 상당하는 길이의 장방형의 형태로, 약간 구배가 있는 지형에 대하여 수직 방

향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러 개의 장방형을 중첩으로 구성한 듯한 외관으로 지하층도 갖추고 있다. 두 개 층을 덮는 유리의 파사드는 외부의 풍경이나 호수 모두를 조망할 수 있다. 두 개층 높이의 현관 홀은 횡방향의 입방체와 종방향의 입방체 모두에 감싸져 있다. 단순한 입방체에 의한 구성이 지면에서 떨어져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지면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주택작품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 新建築

97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최근 작품으로 후쿠시마潟(lagoon) 박물관(아오키 준 설계), 도키가와촌 문화체육 센터(스



즈께 마코토 설계), 와요(和洋)여자대학 사꾸라 세미나 하우스(Factor N Associates설계), 시가 코오겐 로만 미술관(쿠로카와 키쇼 설계), 요쓰야 구민 센터(현대건축연구소 설계) 등이 소개되었다.

##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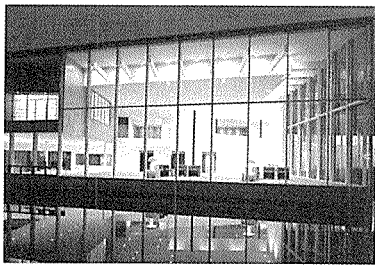
▶ 후쿠시마潟박물관 - 아오키 준 설계



新潟은 그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펄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금은 그 대부분이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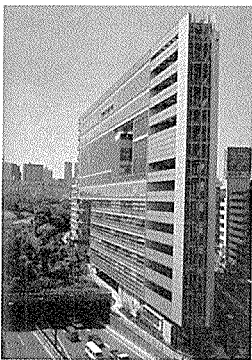
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가운데 豊榮市는 新潟에 남아있는 '후쿠시마灣'을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보고있었다. 개펄에 공공성을 갖게 하려는 계획으로 작가가 제안한 것은 다음의 4가지이다. 개펄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일, 水辺 林의 일부를 실내화하여 북풍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것, 장래를 내다보았을 때 교통량이 증가하게 될 縣道를 개펄로 끌어들이는 일, 개펄을 다양한 각도와 고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와요(和洋)여자대학 사쿠라 세미나 하우스 - Factor N Associates



전체 시설은 크게 연구동, 식당동, 숙박동으로 나뉜다. 평소에 몇 일에 걸친 공동생활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공공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이곳에서의 생활에 포함시키느냐가 주요한 테마였다.

▶요즈야 區民센터 - 현대건축 연구소



건물의 대지는 구도심에서 신도심인 신주주로 들어서는 입구에 위치한다. 따라서 건물은 게이트 웨이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대지는 玉川上水の 종점으로 건물은 武蔵野(숲이 있는 지역)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건물은 도시 가로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개구부를 두고 있으며

각 가로의 성격에 맞추어 입면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연재 - TOKIO 계획 1997

▶PROJECT-10, Binary Towers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의하여 오피스 주거의 구별은 없어져 갈 것이다. 그 때 오피스 빌딩이라는 20세기의 빌딩 타입은 사라지고 Binary Tower라고 불리는 주거와 오피스가 혼성된 새로운 도시건축이 발생한다.

NIKKEI ARCHITECTURE

97년 9, 10월호

격주간인 '니케이 Archi-tecture'는 CAD/CG의 내용을 다룬 9월 15일자의 중간호를 발간하고 있다. 9월 22일자의 특집으로는 '건설후 도망가지 않는 설계자'가, 10월 6일자와 20일자는 각각 '丹下健三으로부터의 졸업'과 'cost의 상식, 거짓과 진실'이 특집으로 다루어 졌다.

■9월 15일자 - 특집: 젊은 건축가들의 디자인 프로세스

건축제도 컴퓨터가 진전되어 독자적인 수법으로 CAD를 활용하는 예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는



손으로 제작한 도면과 혼합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상설계사무소도 출현하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다중다양화 하는 디지털 디자인을 젊은 건축가들의 설계프로세스를 실례로 알아본다.

■9월 22일자 - 특집: 건설후 도망가지 않는 설계자

건설 후에도 자신이 설계한 건물에 책임

감을 갖고 건축주와 문제를 풀어 가는 사무소들의 사례를 들어 건축주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건물

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각 사례들은 檢証, 어드바이스, 관리, 상담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10월 6일자 - 특집: 丹下健三 (단케 겐조)로부터의 졸업

단케 겐조는 1938년 동경대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수를 역임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근대 건축가이다.

근대 일본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건축가像을 만들어 내기도 했던 그의 영향을 알아본다. 아울러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 그의 영향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10월 20일자-특집: COST의 상식, 거짓과 진실

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건축계에서 건설 COST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되짚어 본다. 이러한 상식들은 '설계·시공

일체 방식은 가격이 불투명하다', 'VE를 도입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공공건축은 민간건축보다 가격이 높다' 등으로 이들 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행한다.

특집 외에 렘 콜하스, 자하 하디드, 도미니크 페로의 사무실을 탐방해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